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업용수 급수' 공급 시작

✎ 이병인 기자 | ⓒ 승인 2025.05.08 11:21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8일 올해 영농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관리면적 3천1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13개소이며 현재 평균저수율 94.7%를 확보해 올해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기상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안정적인 저수율을 유지하는 등 농업용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물절약 실천을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중 호우, 가뭄 등에 철저히 대비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올해 농업용수 급수 시작

영농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농업용수 급수

박종구 기자

최종 기사일력 2025-05-08 04:07



계룡저수지 배수 시작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8일부터 본격 관리면적 3,010ha에 농업용수를 공급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13개소이며 5월 7일 현재 평균저수율 94.7%를 확보해 올해 영농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기후 기상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안정적인 저수율을 유지하는 등 농업용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공주시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물절약 실천을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중 호우, 가뭄 등에 철저히 대비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0066@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올해 농업용수 급수 시작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5.05.08 10:37

영농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농업용수 급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가 올해 영농기를 맞아 8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면적 301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영농기 농업용수공급은 저수지 총 13개소 현재 평균저수율 94.7%를 확보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정적인 저수율을 유지하는 등 농업용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박재근 지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중 호우, 가뭄 등에 철저히 대비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이효섭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올해 농업용수 급수 착수

✎ 김상훈 기자 | 2025.05.08 11:44

영농기 맞이 본격 농업용수 급수 가동
전체 관리면적 3010ha 농업용수 공급 예정
저수지 총 13개소, 평균저수율 94.7% 확보, 농업용수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최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용수 급수공급에 대해 8일부터 모두 착수에 들어갔다.(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의 본격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급수공급에 따라 계통저수지 제빙 수문 (사진제공=공사 공주시사)

[충남일보 김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관내 농업용수 급수 공급에 대한 지원 시행에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매년 5월이면 영농기가 본격 시행된다. 이점을 고려해 농업용수 공급이 최우선 농민들에게 공급 관리에 지원이 큰 목표로 삼아 농어촌공사의 핵심 추진 방향이 바뀐 시즌을 맞는다.

현재 공주시사의 농업용수 관리면적은 총 3010ha에 저수지 관리 13개소에 평균저수율도 94.7%를 확보했다. 이런 결과들이 올해 영농급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후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나머지를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보다 안정적인 저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용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공사는 내대본다.

또한 공주시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에도 집중했다. 여기에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물절약 실천을 위해 적극 독려도 그동안 읍면동 지역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앞으로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중 호우, 가뭄 등에 철저히 대비해 물 걱정 없이 많은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h123@korea.com